

대학신입생의 강박증 및 허구성 경향 조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김진성 · 박병탁 · 이종범 · 이종훈 · 정성덕

서 론

강박증경향이란 강박성격이 두드러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성격의 특성은 대개 다음과 같다. 즉 완벽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며 완고하고 규칙이나 질서, 조직, 세밀한 부분등에 집착하여 전체적 양상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지나치게 합리화나 이론화 하려는 경향은 우유부단한 일면으로 드러나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을 회피 내지는 연기하게 되고 감정표현도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또 남에게 돈이나 시간등을 할애함에 있어 인색하고 못쓰는 물건이라도 버리기 힘들어 하는데 이런 점은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표현되어 현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언어는 우회적이며 청결함에 항상 집착해 있다.¹⁾

이런 성격의 경향이 심해지면 강박신경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및 선강염려증등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강박신경증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강박사고와 강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게되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박사고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생각, 관념, 충동 또는 심상이 반복적 및 지속적으로 의식속에 떠오르는 상태이며,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이나 충동을 무시 또는 억제하려고 애쓰지만 의식적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강박행동이란 손씻기나 자물쇠확인하기 등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행동을 고통이나 무서운 공황상태를 예방하거나 잠재된 죄악감을 해소시키려고 고안된 행동으로서 그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만 하며, 수행하면 일시적으로 긴장이 줄어들 뿐이고 수행치 않으면 더 큰 불안이 유발되는 상태이다.²⁾

강박성격과 강박증상이 본격적으로 의학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부터라고 여겨진다. 1838년 Esquirol이 obsessive doubting의 상태를 monomanie raisonnee라고 명명했고 1861년 Morel은 'obsess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1903년 Janet는 "obsessions and psychasthenia"라는 저서에서 정신에너지의 병적 감소가 정상적인 정신기능의 조직화를 붕괴시켜 더 원초적인 정신기능이 조절을 벗어나면 강박증, 우울, 피로, 공포, 불안 등의 증상이 야기된다고 했다³⁾. Freud와 Fenichel 등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항문기로의 퇴행을 중요시 여겼다.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가학적 항문기로 방어적 퇴행을 하여 과거 preoedipal시기의 본능, 자아, 초자아 기능이 재출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양가감정과 마술적 사고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격리, 취소, 반동형성등의 정신방어기제를 통해서 강박증상과 강박성격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5,6)}

강박성격이 강박신경증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조건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강박성격과 강박신경증의 역동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⁷⁾

강박성격 및 강박증 경향과 더불어 본조사에서는

신입생들의 허구적인 성격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중 허구 성척도를 적용해 보았다⁸⁾. 이 척도는 바람직하나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사자의 부정적 태도를 알아낼 수 있는 척도로 남에게 아주 착하고 훌륭하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허구성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신빙성이 적고 방어적이며 긴장하거나 자신의 동기나 행위에 대한 통찰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불안정하거나 피동적임을 의미한다. 또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경직되어 있거나 형식적인 경우에도 높아진다. 교육정도가 낮거나 히스테리성격 경향이 있는 경우 망상을 가진 환자등에서도 상승을 보인다.⁹⁻¹¹⁾

강박성격의 사람은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만 집착하여 융통성이 부족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해서 허구성척도 점수의 상승을 추측케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두 척도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¹¹⁾

본 조사의 대상인 대학신입생들은 지금까지의 입시위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입장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발전될 때이다. 앞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위치로 급변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주체성의 확립, 전문지식의 습득 및 이성문제의 해결등이 요구되는 시기에 놓이게 된다.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그 전 성장단계보다 더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발병율도 더 높음은 물론 심지어는 정신장애와 이에 수반되는 자살이나 자해 및 타해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장애까지 초래하기에 이른다.^{12,13)}

이에 불안 및 우울을 포함한 몇 가지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여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정도를 조기에 파악하였고 그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 본조사이며 이 결과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988년 1월부터 동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 중 본조사에 응답한 37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남학생 2586명(81.4%), 여학생 1206명(82.7%)이었다(Table 1, 2).

조사방법은 Derogatis등이 고안한 간이진단검사중 강박척도(symptom check list-90 중 obsessive-compulsive scale; 이하 강박척도로 약함)¹⁴⁾와 미네소타 인성검사중 허구성척도(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Lie scale; 추후 MMPI, 허구성척도로 약함)⁸⁾에 의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간이진단검사는 9가지 정신과적 증상차원들로 구성된 객관적 질문법 검사인데 이미 국내외에서 사용되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¹⁵⁻¹⁹⁾. 강박척도는 강박관념, 강박행위, 완벽성, 우유부단, 주의집중곤란 및 기억력감퇴등 강박신경증과 강박성격의 특징들을 주로 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여 고득점일수록 강박증적 경향이 심한 상태로 보았으며 총점이 25점이상일 경우 정신질환 발병가능의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다. 이들 고득점자들을 따로 추출하여 전체집단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MMPI는 1943년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Starke R. Hathaway등이 제작 표준화한 성격검사로 진단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검사방법이다⁸⁾. 이 검사는 1965년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등에 의해 한국판 표준화가 이루어 졌으며 임상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허구성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¹¹⁾ 15개 문항중 10개 이상 부정적 대답인 경우 MMPI의 유의한 고득점 수준인 70점에 해당하며, 고득점자들은 따로 추출하여 분포상황을 전체집단과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각 요인별 유의차는 변량분석(ANOVA)을 적용하였으며 남녀간의 비교에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college freshmen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Liberal arts	225	275	500	204 (90.7)	240 (87.3)	444 (88.9)
Science	189	170	359	171 (90.5)	137 (80.6)	308 (85.8)
Engineering	1011	89	1100	827 (81.8)	62 (69.7)	889 (80.8)
Law & Political	237	13	250	155 (65.4)	11 (84.6)	166 (66.4)
Commerce & Economics	372	18	390	319 (85.8)	18 (100.)	337 (86.4)
Medicine	70	10	80	16 (22.9)	3 (30.0)	19 (23.8)
Pharmacy	8	62	70	6 (75.0)	10 (16.1)	16 (22.9)
Agriculture	210	118	328	182 (86.7)	105 (89.0)	287 (87.5)
Home economics	1	209	210	1 (100)	182 (87.1)	183 (87.1)
Education	112	148	260	106 (94.6)	135 (91.2)	241 (92.7)
Fine arts	88	82	170	83 (94.3)	78 (95.1)	161 (94.7)
Musics	31	129	160	30 (96.8)	123 (95.3)	153 (95.6)
Evening Programs	623	136	759	486 (78.0)	102 (75.0)	588 (77.5)
Total	3177	1459	4636	2586 (81.4)	1206 (82.7)	3792 (81.8)

Table 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college freshmen by sex

Age	Male (N=2,586)	Female (N=1,206)
	No. of subjects (%)	No. of subjects
17	442 (17.1)	326 (27.0)
18	1260 (48.7)	681 (56.5)
19	625 (24.2)	164 (13.6)
20	173 (6.7)	24 (2.0)
21	86 (3.3)	11 (0.9)

성 적

1. 강박성적

강박척도로 평가된 신입생의 총점 및 항목별 성적

은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총점은 10.26±5.21이었고 여학생의 평균총점은 10.54±5.01로 여학생이 조금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목별 성적은 남학생에서 높게 평가한 항목은 상위로부터 ⑥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⑦ 결단력이 부족하다 ⑨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①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⑤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등의 항목이며 여학생에서 높게 평가한 항목도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었다.

신입생이 평가한 강박성적분포는 Table 4와 같으며 25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이 37명(1.4%) 여학생이 9명(0.7%) 또 2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 129명(5.8%) 여학생 50명(4.2%) 합 179명(4.7%)으로 남학생이 다소 높은 고득점율을 보였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과 강박성적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대학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미술대학의 평균총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obsessive-compulsive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an

Items of obsessive-compulsive scale	Male (N=2,586) M±SD	Female (N=1,206) M±SD
1. Unwanted thoughts	1.05±0.92	1.12±0.92*
2. Trouble remembering things	0.90±0.86	0.92±0.80
3. Worried about sloppiness	0.83±0.86	1.17±0.94***
4. Blocked in getting things done	1.02±0.86	1.03±0.87
5. Have to do things slowly	1.03±0.91**	0.94±0.83
6. Double check what you to	1.65±1.14***	1.45±1.12
7. Difficulty making decisions	1.23±0.91	1.31±0.86*
8. Mind going blank	0.62±0.78	0.78±0.82***
9. Trouble concentrating	1.17±0.89	1.24±0.89*
10. Having to repeat actions	0.67±0.88**	0.59±0.82
Mean Total	10.26±5.21	10.54±5.0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4. Total score distribution of SCL 90-RS obsessive-compulsive scale in the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an

Total	Male (N=2,586) No. (%)	Female (N=1,206) No. (%)
0-4	275 (10.6)	107 (8.8)
5-9	887 (34.3)	410 (34.0)
10-14	766 (35.4)	438 (36.0)
15-19	357 (13.8)	188 (15.6)
20-24	92 (3.4)	41 (3.4)
25-29	34 (1.2)	5 (0.4)
30-34	3 (1.2)	4 (0.4)
25over	37 (2.4)	9 (0.8)

점이 10.93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고($p < 0.05$) 여학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장지에 따른 강박성적은 남학생에서 읍에서 자란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고($p < 0.05$) 여학생에서 면에서 자란 경우에 높았다($p < 0.05$).

현 거주지별로 본 강박성적에서는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남녀 공히 유의하게 높은 강박성적($p < 0.05$) 및 고득점률을 보였고 학비부담자에 따른 강박성적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형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강박성적($p < 0.01$) 및 고득점률을 보였다.

월잡비에 따른 강박성적은 남학생의 경우 1만원 이하에서 유의하게 높은 강박성적 및 고득점률을 보였다($p < 0.01$).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소속대학교와 소속학과 선택에 따른 강박성적은 불만일 경우에 남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강박성적(각각 $p < 0.01$) 및 고득점률을 보였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따른 강박성적은 남녀 모두 비판적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강박성적(각각 $p < 0.001$) 및 고득점률을 보였다.

출신학교, 소재지, 종교등에 따른 강박성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허구성적

허구성적으로도 평가된 신입생의 총점 및 항목별 성적은 Table 6과 같다.

남학생의 평균총점은 4.73 ± 2.49 이었고 여학생

Table 5. Mean score of SCL 90-RS obsessive-compulsive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Factors	male (N=2,586)			female (N=1,206)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5&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5& over (%)
College						
Liberal arts	204 (7.9)	10.8	3 (1.5)	240(19.9)	10.6	3(1.3)
Science	171 (6.6)	10.1	2 (1.2)	137(11.4)	10.7	2(1.5)
Engineering	827(32.0)	10.6	11 (1.3)	62 (5.1)	11.6	0(0)
Law & Political science	155 (6.0)	10.4	0 (0)	11 (0.9)	11.3	0(0)
Commerce & Economics	319(12.3)	10.2	7 (2.2)	18 (1.5)	11.4	0(0)
Medicine	16 (0.6)	10.4	0 (0)	3 (0.3)	10.3	0(0)
Pharmacy	6 (0.2)	10.0	0 (0)	10 (0.8)	9.2	0(0)
Agriculture & Animal science	182 (7.0)	9.7	2 (1.1)	105 (8.7)	9.6	0(0)
Home Economics	1 (0)	11.0	0 (0)	182(15.1)	10.3	3(1.7)
Education	106 (4.1)	10.2	2 (1.9)	135(11.2)	10.8	0(0)
Fine arts	83 (3.2)	10.9*	1 (1.2)	78 (6.5)	10.1	0(0)
Music	30 (1.1)	7.0	0 (0)	123(10.2)	10.1	0(0)
Evening Programs	486(18.8)	9.9	9 (1.9)	102 (8.5)	11.4	1(1.0)
Home Atmosphere						
Dissatisfied	71 (2.8)	12.2***	2 (2.8)	29 (2.4)	12.5***	1(3.5)
Mediate	1151(44.5)	11.1	19 (1.7)	494(41.0)	11.5	4(0.8)
Stisfied	1364(52.8)	9.4	16 (1.2)	683(56.6)	9.8	4(0.6)
Maturation location						
Myun	529(20.5)	10.4	4 (0.8)	123(10.2)	11.8*	3(2.4)
Up	242 (9.4)	11.0*	6 (2.5)	105 (8.7)	10.9	2(1.9)
City	407(15.7)	10.5	5 (1.2)	205(17.0)	10.2	1(0.5)
Large city	1408(54.5)	10.0	22 (1.6)	773(64.1)	10.4	3(0.4)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6 (4.5)	10.5	3 (2.6)	18 (1.5)	10.0	0(0)
Up	147 (5.7)	10.5	1 (0.7)	56 (4.6)	10.1	0(0)
City	466(18.0)	10.2	7 (1.5)	197(16.3)	10.3	2(1.0)
Large city	1857(71.8)	10.2	26 (1.4)	935(77.5)	10.6	7(0.8)
Residence						
Own house	2179(84.3)	10.1	28 (1.3)	1095(90.8)	10.4	7(0.6)
Relatives & boarding	124 (4.8)	10.8	1 (0.8)	25 (2.1)	11.6	0(0)

Continued

Self-cooking	215 (8.3)	11.6***	7 (3.3)	73 (6.1)	12.0*	2(2.7)
Dormitory	24 (0.9)	10.1	0(0)	2 (0.2)	13.5	0(0)
Others	44 (1.7)	11.7	1(2.3)	11(0.9)	8.4	0(0)
Religion						
Protestant	492 (19.0)	10.4	7 (1.4)	292(24.2)	10.5	1(0.3)
Catholic	179 (6.9)	10.1	4 (2.2)	135(11.2)	10.6	2(1.5)
Buddist	518(20.0)	10.0	9(1.7)	228(18.9)	9.9	1(0.4)
Others	23(0.9)	10.6	1(4.4)	7 (0.6)	10.0	0(0)
None	1374(53.1)	10.4	16(1.2)	544(45.1)	10.8	5(0.9)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141 (5.5)	11.7***	5 (3.6)	38 (3.2)	10.9	0(0)
Mediate	1686(65.2)	10.5	25(1.5)	705(58.5)	11.0***	9(1.3)
Satisfied	759(29.4)	9.4	6 (0.8)	463(38.4)	9.8	0(0)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106(4.1)	12.8***	9 (8.5)	37 (3.1)	12.2***	0(0)
Mediate	862(33.3)	10.6	11(1.3)	437(36.2)	11.2	6(1.4)
Satisfied	1618(62.6)	9.9	17(1.1)	733(60.8)	10.1	3(0.4)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35(1.4)	15.2***	6(17.1)	14(1.2)	10.1	0(0)
Uncertain	1074(41.5)	10.9	16(1.5)	570(47.3)	11.2***	4(0.7)
Optimistic	1477(57.1)	9.7	15(1.0)	622(51.6)	10.0	5(0.8)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106(4.1)	14.3***	8 (7.6)	44(3.7)	13.7***	3(6.8)
Uncertain	1895(73.3)	10.4	26(1.4)	872(72.3)	10.8	5(0.6)
Optimistic	585(22.6)	9.1	3(0.5)	290(24.1)	9.5	1(0.3)
Past self-image						
Pessimistic	291(11.3)	12.6***	18(6.2)	75 (6.2)	13.0***	2(2.7)
Uncertain	1770(68.5)	10.2	16(0.9)	829(68.7)	10.7	5(0.6)
Optimistic	525(20.3)	9.3	3(0.6)	302(25.0)	9.4	2(0.7)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2341(90.5)	10.2	32(1.4)	1133(94.0)	10.6	8(0.7)
Brothers & sisters	104(4.0)	11.6**	4 (3.9)	12(1.0)	12.1	0(0)
Scholarship fund	85(3.3)	11.0	1(1.2)	46(3.8)	10.2	0(0)
Self	56(2.2)	9.0	0(0)	15(1.2)	9.7	1(6.7)
Spending money per month (won)						
Under 10,000	575(22.2)	11.0***	10(1.7)	230(19.1)	10.4	1(0.4)
10,000-29,000	1394(53.9)	10.2	17(1.2)	672(55.7)	10.7	7(1.0)
30,000-49,000	453(17.5)	9.6	7(1.6)	242(20.1)	10.4	1(0.4)

Continued

50,000-69,000	101(3.9)	10.6	3(3.0)	48(4.0)	10.6	0(0)
70,000-90,000	44(1.7)	9.0	0(0)	7(0.6)	8.1	0(0)
over 100,000	19(0.7)	10.2	0(0)	7(0.6)	10.6	0(0)
Familiarity of parents						
Dissatisfied	98(3.8)	12.6***	5(5.1)	29(2.4)	13.5***	2(6.9)
Uncertain	865(33.5)	11.0	14(1.6)	424(35.2)	11.3	1(0.2)
Satisfied	1623(62.8)	9.7	18(1.1)	753(62.4)	10.0	6(0.8)

* : P<0.05 ** : P<0.01 *** : P<0.001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lie scale in 3,792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an

Items	male (N=2,586)	female (N=1,206)
	M±SD	M±SD
1. Once in a while I think of things too bad to talk about.	0.44±0.50	0.57±0.50***
2. At times I feel like swearing	0.25±0.43	0.30±0.46**
3. I do not always tell the truth	0.10±0.30*	0.07±0.26
4. Once in a while I laugh at a dirty joke	0.37±0.48	0.59±0.49***
5. I get angry sometimes	0.14±0.35***	0.10±0.29
6. Once in a while I put off until tomorrow What I ought to today	0.12±0.33***	0.09±0.28
7. Sometimes when I am not feeling well I am cross	0.11±0.32***	0.05±0.23
8. My table manners are not quite as good at home as when I am out in company	0.65±0.48	0.66±0.47
9. If I could get into a movie without paying and be sure I was not seen I would probably do it.	0.46±0.50	0.60±0.49***
10. I would rather win than lose in a game	0.46±0.50	0.06±0.44
11. I like to know some important people because it makes me feel important.	0.50±0.50***	0.50±0.50
12. I do not like everyone I know.	0.15±0.36***	0.10±0.29
13. I gossip a little at times.	0.29±0.45***	0.11±0.32
14. Sometimes at elections I vote for men about whom I know very little.	0.83±0.37*	0.80±0.40
15. I do not read every editorial in the newspaper everyday.	0.15±0.36***	0.11±0.31
Total	4.73±2.49	4.70±2.16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P<0.001

의 평균총점은 4.70±2.16으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목별 성적은 남학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상위로부터 ⑭ 선거때 가끔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⑧ 집에서의 식사예법은 밖에서 남과같이 먹을때 보다 못하다 ⑩나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나 자신 유력하게 느껴지니까. ⑨ 극장에 표없이 들어가도 들킨 염려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① 차마 입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때가 가끔 있다등의 항목이며 여학생에서 높게 평가한 항목도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었다.

신입생이 평가한 허구성분포는 Table 7과 같다. 10개문항 이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신입생은 남학생 98명(3.7%), 여학생 27명(2.2%)으로 양군이 비슷한 고득점률을 보였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과 허구성적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소속대학교와 소속학과 선택에 따른 만족도및 부모에 대한 친숙도 등에 따른

Table 7. Total score distribution of lie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Total item	male(N=2,586)	female(N=1,206)
	No. (%)	No. (%)
1	161 (6.2)	54 (4.5)
2	280(10.8)	119(9.8)
3	397(15.4)	182(15.1)
4	404(15.6)	204(16.9)
5	415(16.1)	215(17.8)
6	287(11.1)	187(15.5)
7	237(9.2)	116(9.6)
8	161(6.2)	61(5.1)
9	99(3.8)	26(2.2)
10	50(1.9)	18(1.5)
11	22(0.8)	3(0.3)
12	13(0.5)	5(0.4)
13	5(0.2)	0(0)
14	8(0.3)	1(0.1)
Over10	98(3.7)	27(2.3)

Table 8. Mean score of lie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

Items	male (N=2,586)		female (N=1,206)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10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10 & over (%)
College						
Liberal arts	204 (7.9)	4.4	3(1.5)	240(19.9)	4.5	4(1.7)
Science	171(6.6)	4.9	7(4.1)	137(11.4)	4.8	3(2.2)
Engineering	827(32.0)	4.6	34(4.1)	62(5.1)	4.5	1(1.6)
Law & Political science	155(6.0)	4.7	6(3.9)	11(0.9)	5.1	0(0)
Commerce & Economics	319(12.3)	4.6	11(3.5)	18(1.5)	4.8	0(0)
Medicine	16(0.6)	4.3	0(0)	3(0.3)	3.3	0(0)
Pharmacy	6(0.2)	6.2*	0(0)	10(0.8)	4.7	0(0)
Agriculture & Animal science	182(7.0)	5.1	7(3.9)	105(8.7)	4.7	2(1.9)
Home Economics	1(0)	2.0	0(0)	182(15.1)	4.8	4(2.2)
Education	106(4.1)	4.9	4(3.8)	135(11.2)	4.7	5(3.7)
Fine arts	83(3.2)	4.7	3(3.6)	78(6.5)	4.6	2(2.6)
Music	30(1.1)	5.3	1(3.3)	123(10.2)	4.9	4(3.3)

Continued

Evening Programs	486(18.8)	4.9	22(4.5)	102(8.5)	4.8	2(2.0)
Home Atmosphere						
Dissatisfied	71(2.8)	4.3	0(0)	29(2.4)	4.3	1(3.5)
Mediate	1151(44.5)	4.4	25(2.2)	494(41.0)	4.4	5(1.0)
Satisfied	1364(52.8)	5.0***	73(5.4)	683(56.6)	5.0***	21(3.1)
Maturation location						
Myun	529(20.5)	4.9	24(4.5)	123(10.2)	4.6	3(2.4)
Up	242(9.4)	4.6	4(1.7)	105(8.7)	4.7	1(1.0)
City	407(15.7)	4.8	17(4.2)	205(17.0)	4.8	6(2.9)
Large city	1408(54.5)	4.7	53(3.8)	773(64.1)	4.7	17(2.2)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6(4.5)	4.6	3(2.6)	18(1.5)	4.9	0(0)
Up	147(5.7)	4.6	2(1.4)	56(4.6)	5.1	1(1.8)
City	466(18.0)	5.0	22(4.7)	197(16.3)	4.8	7(3.6)
Large city	1857(71.8)	4.7	71(3.8)	935(3.8)	4.7	19(2.0)
Residence						
Own house	2179(84.3)	4.7	86(4.0)	1095(90.8)	4.7	24(2.2)
Relatives & boarding	124(4.8)	4.9	3(2.4)	25(2.1)	4.4	1(4.0)
Self-cooking	215(8.3)	4.7	6(2.8)	73(6.1)	4.6	2(2.7)
Dormitory	24(0.9)	4.7	1(4.2)	2(0.2)	3.0	0(0)
Others	44(1.7)	4.7	2(4.6)	11(0.9)	4.6	0(0)
Religion						
Protestant	492(19.0)	4.7	21(4.3)	292(24.2)	4.9	7(2.4)
Catholic	179(6.9)	4.8	6(3.4)	135(11.2)	4.6	3(2.2)
Buddist	518(20.0)	4.9	22(4.3)	228(18.9)	4.8	5(2.2)
Others	23(0.9)	5.4	1(4.4)	7(0.6)	5.3	0(0)
None	1374(53.1)	4.7	48(3.5)	544(45.1)	4.9	12(2.2)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141(5.5)	4.3	3(2.1)	38(3.2)	5.1	1(2.6)
Mediate	1686(65.2)	4.5	40(2.4)	705(58.5)	4.5	9(1.3)
Satisfied	759(29.4)	5.3***	55(7.3)	463(38.4)	5.0***	17(3.7)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106(4.1)	4.6	5(4.7)	37(3.1)	4.2	0(0)
Mediate	862(33.3)	4.4	32(3.7)	437(36.2)	4.5	7(1.6)
Satisfied	1618(62.6)	4.9***	61(3.8)	733(60.8)	4.9***	20(2.7)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35(1.4)	4.5	1(2.9)	14(1.2)	4.9	0(0)

Continued

Uncertain	1074 (41.5)	4.5	27 (2.5)	570 (47.3)	4.5	8 (1.4)
Optimistic	1477 (57.1)	4.9***	70 (4.7)	622 (51.6)	4.9**	19 (3.1)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106 (4.1)	4.3	1 (0.9)	44 (3.7)	4.6	2 (4.6)
Uncertain	1895 (73.3)	4.6	57 (3.0)	872 (72.3)	4.7	16 (1.8)
Optimistic	585 (22.6)	5.1***	40 (6.8)	290 (24.1)	4.7	9 (3.1)
Past self-image						
Pessimistic	291 (11.3)	4.4	7 (2.4)	75 (6.2)	4.4	1 (1.3)
Uncertain	1770 (68.5)	4.7	60 (3.4)	829 (68.7)	4.6	16 (1.9)
Optimistic	525 (20.3)	5.1***	31 (5.9)	302 (25.0)	5.0*	10 (3.3)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2341 (90.5)	4.7	91 (3.9)	1133 (94.0)	4.7	27 (2.4)
Brothers & sisters	104 (4.0)	4.7	4 (3.9)	12 (1.0)	5.1	0 (0)
Scholarship fund	85 (3.3)	4.8	(3.5)	46 (3.8)	4.7	0 (0)
Self	56 (2.2)	5.0	0 (0)	15 (1.2)	4.7	0 (0)
Spending money per month (won)						
Under 10,000	575 (22.2)	5.0	26 (4.5)	230 (19.1)	4.8	6 (2.6)
10,000 - 29,000	1394 (53.9)	4.6	49 (3.5)	672 (55.7)	4.7	16 (2.4)
30,000 - 49,000	453 (17.5)	4.7	18 (4.0)	242 (20.1)	4.5	2 (0.8)
50,000 - 69,000	101 (3.9)	4.7	3 (3.0)	48 (4.0)	4.9	2 (4.2)
70,000 - 90,000	44 (1.7)	5.2	2 (4.6)	7 (0.6)	3.6	0 (0)
Over 100,000	19 (0.7)	4.2	0 (0)	7 (0.6)	6.6	1 (14.3)
Familiarity of parents						
Dissatisfied	98 (3.8)	4.2	2 (2.0)	29 (2.4)	4.0	0 (0)
Uncertain	865 (33.5)	4.4	22 (2.5)	424 (35.2)	4.4	4 (0.9)
Satisfied	1623 (62.8)	5.0***	74 (4.6)	753 (62.4)	4.9***	23 (3.1)

*P<0.05 **P<0.01 ***P<0.001

허구성적은 남녀 모두 만족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허구성적(각각 $p<0.001$) 및 고득점률을 보였으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따른 허구성적은 남녀 모두 낙관적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허구성적(각각 $p<0.001$) 및 고득점률을 보였다.

성장지, 출신학교의 소재지, 현재 거주지, 종교, 학부부담자, 잡비 등에 따른 허구성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강박척도로 평가된 남녀 신입생의 평균총점은 남학생; 10.26 ± 5.21 , 여학생; 10.54 ± 5.01 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김 등¹⁶⁾, Derogatis 등¹⁸⁾, 박 등²⁰⁾의 결과와 부합된다.

항목별 성적을 보면 남녀 공히 높게 평가한 증상은 반복확인, 우유부단, 주의집중장애, 강박사고 및 정 확성 등이었으며 강박행위는 다소 낮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는 박 등²⁰⁾의 결과와 부합된다.

25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 37명(1.4%), 여학생 9명(0.7%), 합 46명(1.2%)으로 일반인구 유병률이 0.05%로 알려진 보고 보다는 많으나 2%로

알려진 Robins 등²¹⁾의 결과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남학생 38명(1.6%), 여학생 15명(1.2%) 합 53명(1.5%)으로 나온 박 등²⁰⁾의 결과 보다는 낮은 성적이었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과 강박성적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미술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타대학보다 미술대학을 선택하는 율이 높음을 시사해주며 추후 더 세부적인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리라 생각한다. 자취를 하는 경우와 학비를 형제에게 의존하는 경우, 성장지가 면·읍등 시골인 경우, 그리고 월잡비가 1만원이하인 경우에 강박성적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강박신경증이 중류이상의 집단에서 잘 생긴다는 통념과 연결해 볼때 상반되나 사회전체속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생활수준정도는 경제적으로 결코 하류계층은 아닐 것으로 본다. 경제적 어려움이 열등의식으로 되기 쉬운 강박신경증적 경향이 stress인자로 작용하여 이와같은 높은 강박성적이 나왔으리라 사료된다.

가정환경이나 소속대학교와 소속학과에 대해 불만일 경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경우에 강박성적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은 주체성의 혼동과 강박성적간의 상관성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며, 이 시기의 주체성 확립문제를 언급한 Erikson이론처럼 주체성의 확립이 대학신입생의 중요한 과제임을 명백히 시사해준다.^{12,13)}

허구성척도로 평가된 남녀신입생의 평균총점은 남학생 ; 4.73±2.49 여학생 ; 4.70±2.16으로 이 등²¹⁾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허구성적이 높은 항목을 보면 남녀신입생이 같은 내용이었는데 허구성 내용이 남녀가 유사함을 나타내 준다.

10개 항목이상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고득점자는 남학생 ; 98명(3.7%) 여학생 ; 27명(2.2%)으로서 남학생이 다소 높은 고득점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 등²²⁾의 결과와 같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리라 생각한다.

사회정신의학적 요인과 허구성적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학별로 평가시 약학대학, 음악

대학, 야간강좌등의 대학에서 유의하게 높은 허구성적을 보였는데 이 대학들의 신입생들이 타대학보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해 주며 학비부담자가 형제일 경우에 허구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이를 부정하려는 심리기전에 의하여 허구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소속대학교와 소속학과 선택에 따른 허구성적은 만족일 경우에 높았고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따른 허구성적도 모두 낙관적인 경우에 높았는데 허구성에 대한 이 등²²⁾의 결과와 일치하며 교실에서 조사한 결과인 강박성적이나 편집증, 우울, 불안의 정도등과 상반되는 결과였다^{20,23)}. 이는 자신의 결함을 시인할 줄 모르고 부정 왜곡하고 자신의 동기나 행위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10,11)}

그러나 항목별로 본 강박성적과 허구성적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강박성적을 높게 평가한 대상의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후일에 더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빈도가 높은 ⑭ 선거때 가끔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⑧ 집에서의 식사예법은 밖에서 남과같이 먹을때 보다 못하다 ⑨ 극장에 표없이 들어가도 들킬 염려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등의 항목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긍정적 생활태도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허구성을 측정하는데 부적합한 항목으로 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바라고 본다.

요 약

1988년 1월부터 동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 중 본 조사에 응한 3792명(남학생 ; 2586명, 여학생 ; 1206명)을 대상으로 Derogatis의 강박척도와 MMPI의 허구성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박척도의 평균총점은 남학생 ; 10.26±5.21 여학생 ; 10.54±5.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항목별 성적은 남녀신입생 공히 반복확인, 우유부단, 주의집중장애, 강박사고, 정확성등의 증상에서 높았다.

3) 강박성적이 25점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 37명(1.4%) 여학생 9명(0.7%)으로서 전체적으로 46명(1.2%)이었다. 또 20점 이상의 강박적경향을 띄고 있는 신입생은 남학생 129명(5.8%) 여학생 50명(4.2%)으로 총 179명(4.7%)이었다.

4)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들중 남녀신입생의 강박성적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환경이나 소속대학, 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의 경우, 부모에 대한 친숙도가 불만일 경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각각 $p < 0.001$) 등이었고 남학생에서는 미술대학에 다니는 경우($p < 0.05$) 읍에서 자란 경우($p < 0.05$), 학비를 형제에 의존하는 경우($p < 0.01$), 월잡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p < 0.01$), 여학생에서는 면에서 자란 경우($p < 0.05$)와 자취하는 경우($p < 0.05$) 등에서 높은 강박성적을 보였다.

5) 허구성척도의 평균총점은 남학생 : 4.73 ± 2.49 여학생 : 4.70 ± 2.16 으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허구성척도의 고득점 항목은 상위로부터 남녀공히 ⑭ 선거때 가끔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⑧ 집에서의 식사예법은 밖에서 남과같이 먹을때 보다 못하다 ⑪ 나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나 자신 유력하게 느껴지니까 ⑨ 극장에 표없이 들어가도 들킬 염려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① 차마 입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등이었다.

7) 허구성척도의 10개이상 문항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고득점자는 남학생 : 98명(3.7%) 여학생 : 27명(2.2%)이었다.

8)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들중 남녀신입생의 허구성적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가정환경이나 소속대학, 소속학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서 만족할 경우, 과거·현재·미래의 자아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경우(각각 $p < 0.001$), 약학대학, 미술대학, 야간강좌에 다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참 고 문 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111-3rd ed-revis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1987, pp. 354-356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111-3rd ed-revis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1987, pp. 245-247
3. Laughlin, H. P. ; The Neuroses, Butterworths, Washington, 1967
4. Janet, P. ; Les Obsessions et la Psychasthenie, paris, 1903
5. Freud, S. ;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1935 ed, New York
6. Fenichel, O. ; Obsession and compulsion in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45
7. Kaplan, H. I. & Sadock, B. J. ;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4th ed., Williams & Wilkins, Baltimore, 1985, pp. 904-917
8. Dahlstrom, W. G., Welsh, G. S. & Dahlstrom, L. E. ; An MMPI, University of Minnesota, 1960
9. Golden, C. J. ; Clinical Interpretation of Objective Psychological Tests, Grune a Stratton, New York, pp. 65-66
10. Graham, J. R. ; MMPI in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Plenum, New York, 1978, pp. 311-331
11.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 MMPI 다면적 인성검사 검사법요강, 코리안 테스트 센터, 서울 1968
12. Erikson, E. H. ;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1968
13. Havinghurst, R. L. ; Development tasks and

- education, Longmans, New York, 1952
14. Derogatis, L. R., Lipman, R. S. & Covil L. ; SCL-90 ;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 Bull. P., 13, 27, 1973
 15. Derogatis, L. R. & Cleary, P. A. ;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for the primary symptom dimensions of the SCL-90, Brit. J. Clin. Psychiatry, 16 : 347-356, 1976
 16. 김광일·원호택 ;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1. 정상인의 반응 특성, 신경정신의학 17 : 449-458, 1978
 17. 김재환·윤여홍 ;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의 신뢰도 및 요인 불변성, 정신건강연구, 제3집, 한양대학교 건강연구소, 1985, pp. 166-172
 18. Derogatis, L. R., Lipman, R. S., Covi, L. ; Dimensions of outpatient neurotic pathology ; comparison of a clinical versus an empirical assessment, J. Consult. Clin. Psychologu, 34 : 164-171, 1970
 19. 김재환·김광일 ; 간이 정신 진단검사(SCL-90)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부산의대 잡지, 21(2) ; 303-310, 19
 20. 박병탁·김진성·이종범·이중훈·정성덕 ; 편집 척도와 강박척도에 의한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 학술지, 4 : 2 : 39 : -50, 1987
 21. Robins L. N., Helzer J. E. ; Life time prevalence of specific psychiatric disorder in three sites, Arch. Gen. Psychiat., 41 ; 949-958, 1984
 22. 이중훈·이종범·윤옥·정성덕 ; 허구성척도에 의한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학생연구, 18 : 1 : 21-34, 1987
 23. 이종범·김창수·박형배·박병탁·이중훈·정성덕 ; 신불안-우울척도에 의한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의대 학술지, 4 : 2 : 29-38, 1987

—Abstract—

A Study on Obsession & Lie in College Freshmen

Jin Sung Kim, Byung Tak Park, Jong Bum Lee,
Jung Hoon Lee, and Seung Douck Cheung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obsession, using Derogatis'SCL-90, and lie tendency using MMPI, in the subjects of 2586 male and 1206 female college freshmen of Yeungnam University.

The authors collected the reports of self-rating Obsession scale and Lie scale during the periods from January to February, 1988, and applied ANOVA and t-test on obsession and lie scores in order to compare than between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The results as follows :

1.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 of total obsession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scored 10.26 ± 5.21 , female students scored 10.54 ± 5.01 .
2. High scored items were doubting, indecisiveness, inattention, obsessive thoughts and preoccupation with accuracy.
3. 37 male students(1.4%) showed high obsession scores of 25 or higher, while 9 female students(0.7%) showed thd same scores.
4. There was strong tendency toward higher obsession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home atmosphere, college, department and familiarity of parents and those who had pessimistic view of self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respectively $P < 0.001$). The male students who attended the department of fine arts, who grew at the Up &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brothers & sisters showed higher level of obsession scores(respectively $P < 0.05$, $P < 0.05$, $P < 0.01$). The female students who grew at the Myun & who were self-cook showed higher level of obsession scores(respectively $P < 0.05$).
5.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lie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scored 4.73 ± 2.49 , female students scored 4.70 ± 2.16 .
6. High scored items were NO. 14, 8, 11, 9 and 1 in the table 6.
7. 98 male students(3.7%) showed high lie scores of 70 or high, while 27 female students(2.2%) showed the same scores.
8. There was strong tendency toward higher lie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home atmosphere, college, department and familiarity of parents and those who had optimistic view of self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respectively $P < 0.001$). The students who attended the department of pharmacy, music, evening programs showed higher level of lie scores($P < 0.05$).

〈부표 1〉 강박척도

지난 1주일 동안에 다음 질문의 각 항목이 당신의 경우와 비슷한 것을 골라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전혀 없다. (2) 약간 있다. (3) 웬만큼 있다. (4) 꽤 심하다. (5) 아주 심하다.
	1.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2. 기억력이 좋지 않다. 3.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4.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5.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6.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7. 결단력이 부족하다. 8. 마음속이 텅빈것 같다. 9. 주의 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다. 10.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부표 2〉 허구성척도

다음 항목의 내용이 당신 생각과 같은 것 이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예 를 해 주십시오.	아 니 오
1. 차마 입밖에 낼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을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2. 때때로 욕설을 퍼붓고 싶어지는 때 가 있다.	
3. 언제나 참말만을 하지는 않는다.	
4. 이따금 지저분한 농담을 하고 좋아 한다.	
5. 가끔 화를 낸다.	
6.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일 이 가끔 있다.	
7. 때때로 기분이 좋지 않을때는 짜증 이 난다.	
8. 집에서의 식사예법은 밖에서 남과 같이 먹을 때보다 못하다.	
9. 극장에 표없이 들어가도 들킬 염려 만 없다면 아마 나도 그렇게 할 것 이다.	
10. 놀이(또는 게임)에서 지는 것보다 이기고 싶다.	
11. 나는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나 자신 유력하 게 느껴지니까.	
12. 내가 아는 사람중에는 싫은 사람도 있다.	
13. 다소 남의 흠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14. 선거때 가끔,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15. 신문사설을 매일 꼬박꼬박 읽는다.	